

제 44 호 정신적 장애

학생이 문제를 잘못 풀 때에는 반드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몇 가지 다른 이유가 가능합니다. 아담스는 문제 풀기를 방해하는 요소를 여섯 가지의 장애로 구분하였습니다.

지적 장애

감정적 장애

문화적 장애

환경적 장애

인지 장애

표현 장애

지적 장애는 부족한 지식이나 부적절한 지식 사용을 뜻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연습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 교수님께서 좋게 지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되는 학생도 가끔 있지만, F 맞을 각오하고 놀겠다는 학생일 경우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감정적 장애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뜻하며, 시험 볼 때에 가장 흔히 작용한다고 합니다. 시험보고 나면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다 아는 내용인데 깜빡했어!”하고 한숨을 푹푹 쉬는 학생들이 항상 있습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감정적 장애 때문에 잦은 실수를 저지르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지요.

물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아드레날린이 필요 이상으로 분출되거나 커피를 퍼마셔서 카페인 에너지가 넘칠 때도 흥분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험보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한다거나 심호흡을 한다거나 명상을 해서 들뜬 에너지를 가라앉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교수님께서 시험에 대한 공포를 (고의적이 아니겠지만) 조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보는 날 교실에 늦게 들어가서 학생들을 초조하게 만들거나, 황당한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답을 깨끗하게 쓰지 않으면 감점한다고 겁주거나, 이번 시험으로 A 학생과 F 학생을 구분할 것이라고 으름장 놓거나, 등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도사급 단전호흡을 해도 감정적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시험실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학생들의 긴장감을 적당히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호에는 문화적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벽, 1999